

# 寶物로指定된

# 堯明科學文化財들

## 觀天臺

寶物 : 第851號  
 所在 : 昌慶宮  
 製作年代 : 1688年  
 材料 : 화강석  
 크기 : 높이 3m,  
 넓이 289cm × 230cm

서울에는 현재 朝鮮時代에 축조된 2개의 觀天臺가 있다. 하나는 옛 北部 廣化坊 觀象監 자리인 현대건설 빌딩앞(전 휘문고등학교 교차)에 있고, 다른 하나는 昌慶宮 안에 있다. 두 觀測臺는 그 구조나 크기 그리고 축조 양식이 거의 같다. 그런데 昌慶宮에 있는 것은 『書雲觀志』에 그 축조연대가 숙종 14년(1688)으로 밝혀져 있으나 현대건설빌딩 앞의 것은 그 축조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觀測臺의 명칭은 『서운관

지』에서 觀天臺라고 부르고 있으나 그에 의하면 小簡儀를 설치하여 관측하였으므로 小簡儀臺라고 부를 수 있고, 속칭 첩성대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우리는 『서운관지』의 일반명칭에 따라 관천대라 부르기로 한다.

현대건설 신축사옥이 들어서 있는 옛 휘문고등학교 자리는 朝鮮 초기부터 觀象監이 있던 곳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관상감은 『尙衣院 남쪽에 있고, 또 하나가 北部 廣化坊에 있다』고 하였으니, 『동국여지승람』이 처음 편찬되었던 성종 18년(1486) 이전에 관상감은 景福宮 박인 현대건설 사옥 자리에 들어서 있었음에 틀림없다.

관상감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 그 앞의 낮은 언덕길은 지금은 평탄한 길이 되었지만 朝鮮末 까지 구름재(雲峴)라 불렀다. 朝鮮初에는 관상감이 書雲觀이었으니까, 처음 그곳에 자리잡으면서 그 언덕길은 書雲觀재, 즉 雲峴이 되었다. 朝鮮末에 대원군이 살던 雲峴宮의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그 관상감 터에는 원래 2개의 관천대가 있었다. 『서운관지』에는 관상감과 觀天臺에 대하여 이렇게 의

어 있다.

“本監이 하나는 경복궁 영추문 안에 있고 하나는 북부 광화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觀天臺가 있었다. 중간에 전쟁을 만나 昌慶宮의 금호문 밖과 경희궁의 개양문 밖에 고쳐세웠는데 다 觀天臺가 있었다. 흔히 첩성대라 부른다.

숙종 무진년에 영감사 南九萬이 몸소 터를 살펴 관가를 처음으로 세우니 이것이 금호문 밖의 本監이다. 하늘을 살펴 속직하는 제도가 한때 성하게 갖추어 졌고, 아전·노예·工匠들 또한 각각 일할 곳이 있었다. 개양문 밖의 本監도 같은 것인즉 壬午년에 창건되었는데 監官 李國華·宋滙 등이 공사를 관리했다.

대의 설치규모는 대략 같고, 청사 동서쪽의 집은 작다. 이 때에 金昌集이 본감을 감독했다. 세월이 오래됨에 무너져 황폐하니 이에 임금께서 심히년에 비로소 건물을 세워 축후하는 곳을 갖추었다. 무인년에 또 문·결채를 세우고 觀天臺를 호조에서 수리하였다.

동쪽과 서쪽방과 청사가 7칸반이 고 이 청이 3칸이며 대문 좌·우의 행랑이 각각 1칸이고, 해시계와 측우대가 있다. 觀天臺는 청사 남쪽

에 돌을 쌓아 대를 만들고 돌난간을 둘러 平方石을 올려 놓았는데, 천체를 관측할 때는 그 위에 소간의 의를 설치하였으므로 소간의대라고도 한다.

이것은 관상감의 청사와 觀天臺 건립경위에 관한 가장 자세한, 또 실제로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成周憲이 쓴 이 기록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관상감 청사와 觀天臺의 건립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朝鮮初부터 관상감은 경복궁 迎秋門 안에 내관상감이 있었고 北部 廣化坊에 또 하나가 있었다. 경복궁에는 大簡儀臺가 있었고, 광화방 관상감에는 觀天臺가 있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때 두 觀測臺가 불타버리고 숙종때에 2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광화방에, 다른 하나는 壬午年 즉, 숙종 28년(1702)에 경희궁 開陽門 밖에 세웠다. 그 크기나 구조는 비슷하다.

둘째, 광화방 觀天臺는 불타 그을은 채로 못쓰게 된 것이 남아 있어, 숙종 14年 즉 1688년에 領監事 南九萬이 작은 창덕궁 金虎門 밖에 새로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昌慶宮 안에 남아있는 觀天臺이다. 『서운관지』의 昌慶宮 금호문 밖이라 함은 창덕궁의 西門인 금호문을 잘못 昌慶宮이라 쓴 것이다.

그 두번째 觀天臺가 언제 창경원 안에 옮겨졌는지 기록에 없다. 朝鮮조가 망하고 昌慶宮이 창경원으로 되고난 후에 옮겨진 것은 확실하다.

셋째, 觀天臺는 돌로 축조한 대 위에 돌난간을 두르고 그 한 가운데 네모난 돌을 놓아 小簡儀를 설치하게 한 것이다.

觀天臺의 축조연대는 모든 문헌 자료의 기록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고증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현대건설 사옥이 자

리잡은 터는 전해오는 바와 같이 朝鮮 초기부터의 書雲觀(觀象監) 자리이다. 그 곳에는 조선초기에 서운관 청사가 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손상된 觀天臺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觀天臺는 관상감이 이곳에 세워지면서 축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1486년 이전에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태종 17년(1417)에는 관천대를 축조하도록 했었으나 기록되지 않았다는 『太宗實錄』의 기록이 있을 것을 보면, 1417년 이전에는 축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고 보면, 북부 광화방 관천대의 축조연대는 1417년에서 1486년 사이로 압축된다. 그것은 아마도 경복궁 大簡儀臺가 축조된 세종 16년(1434) 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때 小簡儀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경복궁 千秋殿 서쪽에 설치하고 다른 하나는 서운관에 주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렇게 볼 때, 북부 廣化坊 관상감의 관천대는 15세기 전반기에 축조된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지금 창경원에 남아있는 觀天臺는 1688년 창덕궁 금호문 밖의 새 관상감자리에 축조되었던 것이다. 만일 지금 현대건설 사옥앞에, 남아 있는 觀天臺가 숙종때 축조된 것이라면 成周憲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표현, 즉 북부 광화방 관상감의 관천대와 금호문 밖의 관천대로 쓸 이유가 없다. 사실 금호문 밖이라는 곳도 광화방 일대인데 굳이 숙종때 재건한 관상감을 「금호문 밖의 본감」으로 표현한 것은 광화방의 옛 관상감 자리와 구분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창경원의 觀天臺가 처음부터 昌慶宮안에 세워진 觀天臺라면, 17세기경의 것이니까 기록이나 그 밖의 자료에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

로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觀天臺와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한 축조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건설 신축사옥 앞의 관천대는 1984년 가을에 현위치에 복원되었다. 휘문고등학교 자리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나일성 교수팀이 그 방위와 경위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觀天臺 위 중앙에 十字線이 그려져 있는 관측용 대석의 방위 : 대석의 남북선의 방위각은 353°로서 眞北 방향에 7° 서偏西되어 있다. 그러나 磁北 방향과는 거의 일치한다.

觀天臺 축조물의 방위 : 축조물의 방위각은 6°로서 진북 방향에서 6° 偏東되어 있다. 따라서 대석의 남북선으로부터는 13° 偏東되어 있는 셈이다.

천문 경위도 : 북위 37°35′.0, 동경 126°57′.2.

昌慶宮에 있는 觀天臺는 높이가 2.2m, 넓이 2.4m×2.3m의 화강석으로 쌓은 石臺이다. 위에는 돌난간이 둘러져 있고 아래서부터 둘째 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臺의 한가운데 99cm 높이의 관측기를 올려놓을 또 다른 작은 석대가 있고 그 위에 넓이 73.4cm×52.6cm, 두께 24.5cm의 또 하나의 석대가 놓여 있다. 여기에는 남북방향으로 관측기를 고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5개의 구멍이 파여 있는데 그 4개의 간격은 66cm×37.7cm이다.

이 觀天臺는 昌慶宮이 일제에 의하여 창경원으로 되었을 때, 원위치에서 불새막사 남쪽으로 옮겨졌다가, 1970년대 후반에 다시 지금의 위치인 명전전 회랑 북쪽으로 옮겨졌다. 옮겨질 때의 상황과 위치 방향 등의 정밀측정은 없었던 것 같다. <8>